



제주 코로나19 소규모 n차감염 지속

3월 들어 하루 평균 3~4명 추가 확진자 발생 6~7일 6명 확진... 감염경로 오리무중 환자도 도, 실내·외 체육시설 1200곳 대상 특별점검

3월 들어 제주지역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등을 연결 고리로 한 n차감염에 더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95명이다. 지난 4일 2명(583·584번), 5일 5명(585~589번), 6일 4명(590~593번)이 발생한 이후 7일 오후 5시 기준 2명(594·595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들어서만 하루 평균 3.57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가족으로, 최초 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흘 뒤 받은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587·588번은 서울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기간 도중 확진된 사례다. 589번은 '더문' 종업원 확진자의 접촉자다.



해녀물질을 신기한 관광객들 7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물질을 해녀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583번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A국제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다.

584번은 제주시 연동 바(bar) '더문' 종업원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곳엔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도의회 직원과 효돈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녀간 이후 종업원 3명이 감염됐다.

585번은 지난 4일 부산 영도구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 받고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586번은 지난 1일 확진된 572번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나왔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590~593번은 가족 관계로, 590번과 591번이 확진된 이후 가족들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각각 탐라중학교 교사, 오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594번은 오현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결과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595번은 개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6일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날 확진됐다.

탐라중학교와 관련해 20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총 35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관련해서는 79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132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는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불링장 2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링장을 포함해 당구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육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 5명 입건

1~3세 아이들 10여명 때려 경찰 "CCTV 등 수사상황 따라 입건 교사 더 늘수도"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10여명의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손녀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원장은 곧장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 A(20대)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1~3세 아동 10여명을 손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추정 아동 중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친손녀와 외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큰 충격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저희 손주들에게도 학대가 일어났지만,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상황이 발견됐을 당시 바로 선생님을 배제했고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려 사과를 드렸다"며 "당장이라도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한 명의 아이라도 피해 없이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등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고충석 전 국제대 총장 임금체불 점유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 ▷재정난에 처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총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전 총장은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일하는 A씨의 2016년 3월 일부 임금 115만5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같은달 2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0월 21일까지 노동자 15명의 임금 1억6170만758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 전 총장은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 ▷재정난에 처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고 전 총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피고인 본인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과 임금 삭감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당수 교직원들의 동의도 얻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해양생태계 보호정책 절실"

제주에서 보호종인 상괘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핏핑크돌핀스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고래류와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호정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쯤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해녀탈의장 100m 인근 검은모래 해변에서 상괘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결과 길이 114cm, 둘레 90cm, 몸무게 40kg의 수컷 상괘이다.

핑크돌핀스는 "폐어구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밀려온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 더미에서 상괘이를 비롯한 고래류와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호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교사·학생 코로나 확진... 신학기 '비상'

해당 학교 원격수업 전환... 도교육청 "학교현장·방역당국과 협력"

개학 첫 주만에 고교생과 중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새 학기 학교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해당 학교 2곳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일 오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명과 탐라중학교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7일 정체가 확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해당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학년은 오현고 3학년, 탐라중

은 전체 학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온라인 개학을 한 탐라중 2학년 학생들의 새학년 첫 등교수업은 2주 더 미뤄지게 됐다.

다만 오현고는 3학년만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2학년은 예정대로 8일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한 결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안타깝다. 학교 현장 및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

고,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학부모 및 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 2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등교·온라인 개학을 통한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시작됐다. 도내 전체 191개 초·중·고등학교 중 81%에 해당하는 155개 학교 전교생은 등교 수업을, 대규모 학교 36개교는 밀집도 3분의2가 유지돼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 운영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만취 선박운항 40대 집유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40대에 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어판장 부두에 계류돼 있던 24t급 근해제낚기어선에 승선한 뒤 약 4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목이 특가할인!

건강보험공관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HITBA 히트브랜드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